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4년 4월 14일(주일) 제1487호



사진은 지난해 '달려라 풍당'

행복한 가정 레이스, '달려라풍당!'

4월 27일~5월 26일 ... 참가신청 4월 13일부터 홈페이지
4월 27일 서빙고 및 양재온누리교회 스페셜데이 행사

CGN이 온누리교회 전 캠퍼스와 함께 2024 행복한 가정 레이스, '달려라풍당(이하 2024 달려라풍당)'을 시작한다. 4월 27일(토)부터 5월 26일(주일)까지 한 달 동안 이어진다. 참가신청은 4월 13일(토)부터 5월 25일(토)까지 CGN 홈페이지(cgntv.net)에 올려둔 구글폼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2024 달려라풍당 슬로건은 '행복한 가정 레이스'다. 부모와 자녀, 공동체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 세대 통합의 장(場)을 만들고, 가정친화적인 캠페인으로 확산시켜 건강한 가정과 교회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24 행복

한 가정 레이스, 달려라풍당 목표는 참가자 3,000명, 모금액 1억 원이다.

2024 달려라풍당 참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걷기, 자전거, 러닝, 등산 등 개인이나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활동과 후원 목표 금액을 자유롭게 정한 다음 참가신청서에 기록한다. 캠페인 기간에 운동 목표를 달성하고, 그 금액만큼 CGN을 후원하면 된다. 후원금 전액은 가정회복과 다음세대를 위한 기독 OTT '풍당' 콘텐츠 제작과 허입에 사용한다.

2024 달려라풍당의 스페셜데이 행사가 4월 27일(토) 오전 10시 서빙고온누리교회와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열린다. 가수 이무송, 코미디언 김기리, 이정규, 개그우먼 김혜선 등이 개막행사에 출연할 예정이다. 스페셜데이 행사 이후 오전 10시 30분부터 도보, 자전거, 러닝 등 각자의 방식으로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 주변 코스를 걷거나 달리면 된다. 정해진 코스를 돌면서 거점마다 스탬프를 찍고, 목표 지점까지 완주하면 된다. 참가자들은 주행한 거리를 직접 측정해서 그 거리만큼 후원금을 CGN에 기부하게 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5월 4~5일 국내 모든 캠퍼스

오는 5월 4일(토)과 5일(일)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이다.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이날은 자가용은 집에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와야 한다. 5월 4일 오전 5시부터 5월 5일 오후 10시까지 교회주차장 이용을 제한한다. 교회 주변 아파트나 상가, 도로변에 불법 주차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대중교통 이용 주일 교회주차장은 7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36개월 이하 자녀 동반, 자녀 3명 이상, 첼로 연주자, 어린이 3명 이상 카풀 차량 등에게 발급되는 주차증을 부착한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이촌역, 국립중앙박물관, 거북선 나루터,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양재역 환승주차장을 오가는 셔틀을 운행한다(셔틀 시간 추후 공지). 셔틀은 일요일에만 운행한다.

문의: 02-3215-3434 / 홍하영 기자

'굿월스토어 기증 캠페인'

'굿월스토어 기증 캠페인'을 4월 21일(일)과 28일(일) 서빙고, 양재, 부천, 수원, 대전, 남양주, 평택, 인천, 강동온누리교회에서 한다. 서빙고와 양재, 부천, 대전, 평택은 교회에 설치되는 굿월스토어 기증함에, 수원, 인천, 강동은 교회 내 지정 장소, 남양주는 목회지원실로 기증품을 가져오면 된다. 기증품이 많은 경우에는 굿월스토어에 연락하면 방문 수거도 한다.

굿월스토어 기증품은 재사용이 가능한 의류, 신발, 가방, 잡화, 도서, 음반, 주방용품, 생활용품, 소형 가전제품, 유아용품 등이다. 굿월스토어에서는 성도들이 모아준 기증품을 매장에서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한다.

문의: 1533-0091

/ 김다애 기자 daa2@onnuri.org

SNS청년부 1부 예배 'CROSS' 신설

SNS청년부(담당 최성민 목사) 1부 예배 'SNS CROSS'가 신설됐다. SNS청년부 1부 예배 'SNS CROSS'는 서빙고온누리교회 맞은편 '온누리청소년센터 B1 체육관'에서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30분에 드린다. 2부 예배는 기존처럼 매주 일요일 오후 4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드린다. 최성민 목사는 "이 시대 청년들이 SNS청년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비전을 밝혔다. 신지원 자매(SNS청년부)는 "SNS청년부 1부 예배가 이 시대 청년들의 공허한 마음을 위로하고, 영혼을 살리는 예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망했다. / 김현준 기자

2030 자녀를 위한 맞춤형도집회 '인생네켓'

5월 13일 오후 6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

2030 자녀를 위한 맞춤형도집회 '인생네켓'이 5월 13일(월) 오후 6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다. 이번 맞춤형도집회는 부모가 예수님을 떠나 있는 자녀들에게 다시 복음을 선물하는 축복의 장(場)이다. 과거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2030세대 자녀가 대상이다.

2030 자녀를 위한 맞춤형도집회 '인생네켓' 참가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선착순 모집한다.

이번 맞춤형도집회에서는 이재훈 위임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유튜브 박위, 가수 범키, 가수 f(x) 루나, 가스펠보컬밴드 CRUX, DJ

PLASTIC KID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부모와 자녀가 맛있는 식사를 함께하고, 신앙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만찬이 준비되어 있다. 애프터 프로그램으로 '인생네켓 데이트'도 한다. 테이블 리더(대학청년부 리더)와 팀원이 함께 인생네켓 사진을 찍고, 예배로 초대하는 이벤트다.

2030 자녀를 위한 맞춤형도집회 '인생네켓' 요청자들을 위한 기도모임도 열린다. 4월 22일(월)과 29일(월) 오후 7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요청자들은 두 번 열리는 기도모임에 꼭 참석해야 한다.

/ 홍하영 기자

당회

일시: 4월 20일(토) 오전 6시 양재 기쁨홀
대상: 전임교역자, 사역, 시무, 명예, 협동장로
안건: 서빙고온누리교회 레노베이션 공사
온누리청소년센터 내부설비 및
이사 위한 추가경정예산 신청

제직회

일시: 4월 21일(일) 도곡 1부(오전 9시) 예배
후 도곡 사랑홀(숙명여고 강당)
대상: 모든 제직
안건: 서빙고온누리교회 레노베이션 공사
온누리청소년센터 내부설비 및
이사 위한 추가경정예산 신청

A Bold Witness for Christ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믿는 이들이 늘어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임으로 인해 생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짐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행정적인 문제입니다. 6장 1절에서 “음식을 분배 받는 일에서 누락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실수라는 뉘앙스를 보여줍니다. 어떤 이유로든 있어야 할 이름이 빠지고, 마땅히 돌봄을 받아야 될 대상이 누락이 되는 것은 단순한 행정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관계 문제, 영적인 문제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둘째, 서로 다른 문화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생기는 문화적 긴장입니다. 구제 명단에 빠진 사람들은 주로 그리스와 유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와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파’, ‘히브리파’라는 단어를 쓴 것은 교회 안에 정당처럼 파가 나뉘었다는 게 아닙니다. 언어와 문화에 더 익숙한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인데, 문제는 주로 누락이 된 사람들이 그리스와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문화적 긴장 혹은 갈등으로 비화된 것입니다.

우선순위 재정립,
성령과 지혜 충만한 리더십 세우기

사도들은 이 갈등을 그냥 덮으려 하지 않고 해결했습니다. 이 갈등이 도리어 부흥의 촉매제가 되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첫째, 우선순위를 재정립했습니다(2~4절). 갈등 속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각자가 올바른 우선순위에 충실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우선순위에 충실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또한 각자에게 주어진 우선순위에 충실하고 있는지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구제와 봉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긴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힘든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이 일로 인하여 공동체의 영적 생명력이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 갈등이 생길 때 해결하려다가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는 일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이라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공동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리더십으로 세웠습니다(5~6절). 사도들은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제안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들의 권위는 수직적이고, 강압적인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제안하고 대화하는 수평적 권위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일곱 사람을 뽑았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다’는 것은 사도직과 집사직으로 구분해서 완벽하게 직제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도들을 돕는 보조사역자로서 일을 분담했다고 봐야 합니다. 또 이들 가운데 스테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중에서도 뚜렷하게 지혜와 능력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혜’란 현실에 대한 분별력과 판단력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성과 판단력을 통해서 결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성적 판단력을 제외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적 판단을 사용해서 성령 안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성적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성령 안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혜로 결정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믿음으로 결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두 가지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 결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정한다’고 할 때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믿음으로 결정한다’고 할 때도 이성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롭게 할 때도 믿음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을 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예”, “아니오”, “기다려라”입니다. 이 외에 두 가지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믿을테니까 네가 잘 판단해서 결정해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판단을 존중해 주시는 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에게 이미 주어진 지혜를 활용해서 결정하면 내가 믿어줄게”라는 응답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알아서 할테니까 너는 손 떼”입니다. “너는 이제 그만 생각해”라고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곱 명이 믿음과 지혜가 충만해서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신실한 리더들,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리더들이 계속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두 가지 열매인 지혜와 믿음은 교회 리더십으로 세움을 받는 중요한 자질입니다.

문화적 차이가 있는 사람들을 끌어안다

셋째, 그들은 문화적 차이가 있는 사람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앞서 그리스와 사람들이 명단에서 빠졌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일곱 사람들의 명칭이 모두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스테반은 스테파노스(면류관)입니다.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안디옥 사람 니골라입니다. 안디옥 사람임을 강조하는 것은 이 사람이 완전히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종한 니골라를 새롭게 리더십을 뽑았습니다. 유대인, 예루살렘 출신, 익숙한 문화권에 있는 이들이 아닌 사람 가운데 리더를 세웠습니다. 그동안 소외감을 느끼고, 상처가 있고, 불평이 있었던 문화권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리더십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도 함께 리더십으로 참여하는 다문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 한국 교회, 온누리교회도 개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M미션이나 이주자들이 와서 이제는 다문화 공동체가 익숙해졌습니다. 많은 다문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에 오래 거주하면서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도 온누리교회 리더십으로 세워 드리고, 넓은 다문화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같은 인종, 같은 문화 사람들끼리만 어울립니다. 사실 그것이 편합니다. 사회는 다문화 사회인데 교회는 단일문화가 지속되기를 고집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의 결정을 보십시오. 당시 유대문화 중심적인 공동체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결정입니다. 새롭게 세워진 일곱 명을 모두 그리스와 사람들로 세웠다는 것이 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것입니다.

한국도 다문화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한국인만 생각한다면 교회 정체성의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배타적인 교회가 된다면 한국 교회가 선교적인 공동체로 쓰임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스와 사람들이 명단에서 누락되고 갈등이 생겼지만, 그리스와 사람들에게 더 친숙한 리더십을 세우고, 서로 끌어안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초대 교회에 갈등이 일어났지만 그 갈등이 부흥의 촉매제가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갈등이 부흥의 촉매제로!

말씀이 계속 퍼져나갔고, 믿는 사람이 늘었고, 심지어 제사장들도 많이 믿게 되었습니다(7절). 공동체 안에 있던 갈등이 심각해져서 깨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실한 일곱 명이 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스테반입니다. 사도들의 영향력보다 스테반의 영향력이 더 컸습니다. 이분에게 꼭 붙여지는 별명이 ‘충만’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그분이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영혼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억울하게 심문받은 것처럼 스테반이 성전과 율법에 대해 험담을 한다는 누명을 쓰고 공회원을 앞에 섭니다. 그때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얼마나 긴장되는 순간입니까? 자신을 잡아먹을 듯 고소하고, 억울하게 몰아세우는 그들 앞에서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해치려고, 공격하려고 달려드는 사람에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충만입니다. 충만이란 흘러넘친다는 의미입니다. 우러러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충만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귀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담대한 증인이자 온화하고, 평화롭고, 대적하는 이들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충만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에 갈등이 있었지만 갈등을 녹여내고,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고, 올바른 사람들을 세우고, 서로의 차이를 끌어안았을 때 갈등이 오히려 부흥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공동체에 때로는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공동체가 서로 끌어안는 모습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서로를 끌어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미디어

미디어와 기독교인의 삶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의 영향력은 거대하며,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침투해 있다.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의 정보를 얻고, 수천 km 떨어진 사람들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 이처럼 미디어는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이는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기독교인이 미디어를 통해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는 정보의 전달,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기독교인에게 미디어는 복음을 전파하고, 신앙공동체 내외부와 소통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 기독교인의 75%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예배와 신앙공동체 활동에 참여한다.

그러나 동시에 미디어는 종종 세속적 가치와 유혹을 전달하는 채널이 되기도 한다. 특히 젊은 세대는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비성경적인 메시지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기독교인은 미디어를 사용할 때 분별력을 발휘해야 한다. “미디어는 우리의 영혼을 뒤돌고 있다”고 경고한 바와 같이 기독교인은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할 때 그것이 자신의 신앙과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세속적인 가치와 비성경적인 메시지를 걸러내고, 우리의 신앙과 가치관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선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성경적 원칙에 기초한 영적 분별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모든 정보가 진실이 아닐 수 있으므로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 미디어 중독도 경계해야 한다.

둘째, 기독교인은 미디어를 통해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유튜브, 소셜 미디어

를 구축할 수 있다.

셋째, 미디어는 기독교인의 삶에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고립이 심화하는 시대에 미디어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안과 자원을 제공하는 연결 도구가 된다. 온라인 기도회나 성경공부 모임 등 신앙에 관한 공유와 토론이 개인의 신앙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디지털 공간을 활용해서 서로의 경험과 통찰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로써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촉진하는 더 강력하고, 포괄적인 신앙공동체

“우리는 미디어를 ‘신앙 성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어, 블로그, 팟캐스트와 같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이 시대 기독교인들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다. CGN에서 방영하는 ‘오십쇼’ 콘텐츠가 성경을 쉽게 설명해서 비기독교인의 진입장벽을 낮추었듯, 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무수히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줄 수 있었다. 필자가 과거 KBS 근무 시절 전화 한 통화에 1천 원을 모금하는 ‘사랑의 리퀘스트’란 프로그램을 통해 1997년 10월부터 17년 동안 약 874억 원을 모금해 9만여 명에게 따뜻한 사랑을

를 구축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사는 것이 쉽지 않다. 우리는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다양한 유혹과 도전 속에서 신앙을 유지해야 하는 영적 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야 한다. 기독교 콘텐츠를 제작하는 CGN의 구성원들은 매일 오전 시간에 1시간씩 예배와 큐티, 기도회를 가진 다음 업무를 시작한다. 업무 시작 전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영적으로 무

장한다. 각종 회의 또는 국내외 촬영 현장에서 시작과 끝은 기도다. 선교와 복음의 가치를 담은 콘텐츠를 통해 세계 어느 곳에, 누구에게라도 전달되어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는 사명에 충실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다.

미디어는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이고, 그 영향력이 막대하다.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신중한 선택과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우리의 신앙이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도 빛나게 유지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는 기독교인 신앙생활의 ‘도전이자 기회’다. 올바른 사용법과 성경적 원칙에 기초한 접근 방식을 통해 우리는 미디어를 ‘신앙 성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시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각자 삶의 현장에서 미디어 선교사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전진국 집사
(CGN 대표,
한강공동체)

특별기고 - 민주주의와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에서만 나오는 대답”

선거는 끝났고, 국가의 방향이 정해졌다. 하지만 정치는 우리의 삶과 문화에 계속 영향을 줄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정치 영역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그 중요성을 경시하지 않으면서도 온통 마음을 빼앗는 정치의 소모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맞서 반박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많은 사람이 소셜 미디어,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과 케이블 뉴스에 소비하는 시간을 줄이고, 성경과 신학에 대한 지식을 배양하는 시간을 늘려야 할 것이다. 무거운 문화적 순간에 무엇이 자신의 세계관을 형성하는지에 대해 의식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정치적 착각에 빠질 위험이 있다. 중간선거 직전 트위터에 올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을 들어보자.

“민주주의는 정부 형태 그 이상이다. 그것은 존재의 방식이다. 세상을 보는 방법이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정의하는 방법이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그렇게 기본적인 것이다.”

대통령의 말을 가볍게 다시 표현하면, 민주주의가 세계관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그게 사실인가? 정부 시스템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이처럼 유사 종교적인 어조는 <워싱턴 포스트

>의 과장된 표어인 ‘민주주의는 어둠 속에서 죽는다’와 비슷한 면이 있다. 시장경제나 배심 판결이 세계관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주권이란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믿고, 왜 우리가 일을 하는지’를 정의하는 ‘세상을 보는 하나의 방식’이 아니다. 오히려 이들 각각은 현실에 대한 깊이 뿌리박힌 믿음으로 형성된 이전의 가치들을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는 투표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일을 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 때문에 그 일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은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 그는 민주주의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결정한다고 가정한다. 실제로 민주주의(또는 어떤 형태의 정부)는 세상에 대한 일련의 특정한 가정들, 즉 개인의 존엄성과 중요성, 평등하게 창조된 모든 인간, 군주로서 통치할 신성한 권리를 부정하는 데에서 나온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가정들은 다른 곳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다양한 민주주의는 일반 투표로 침해될 수 없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고 가정한다는 점이다. 그러한 가정의 배경은 인종분리정책을

종식한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와 같은 대법원판결뿐만 아니라 권리장전이다. 만약 우리가 민주주의보다 먼저 이 세상에 대한 특정한 진리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그 진리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란 지속 불가능하고 불의한 폭민(중우) 정치로 전개될 것이다. 못 민졌다면 단두대가 있었던 프랑스를 생각해 보라.

미국의 건국 선열들은 이점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연방이나 주 차원에서 순수한 민주주의를 물려주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민주주의 공화국을 남겼다. 그들이 남긴 문헌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순수한 민주주의를 두려워했고, 그것을 끔찍한 형태의 정부로 여겼는지를 보여준다. 민주주의는 하나의 세계관이 아니다. 오히려 세계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다. 민주사회가 만들어 내는 법은 투표하고 입법하는 사람들의 세계관에 달려 있다. 민주주의를 근본적인 가치의 원천이자 현실을 보는 방식으로 취급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부, 그리고 인간의 상황을 오해하는 것이다. 그것은 정치적인 시스템이 답을 줄 수 없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민주주

의는 단순히 그렇게 큰 개념이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의 세계관에 대한 모든 기대를 정치에 쏟아부었다. 그러나 정치는 구원을 가져오거나, 도덕성을 결정하거나, 궁극적인 의미를 제공하거나, 우리의 관계들을 굳건하게 만들 수 없다. 정치는 무엇이 선하고 진리인지를 반영해야 하는데, 무엇이 선하고 참인지 정의하거나 지속시킬 수 없다. 만약 우리가 삶의 많은 부분을 정치에 계속 신는다면, 그것은 결국 무너질 것이고, 그 결과는 엉망일 것이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 정부는 세상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투표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지키는 방법으로 선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은 오로지 기독교 세계관에서만 나오는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이야말로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실제로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것이다.

/ 존 스톤스트리트(척 콜슨 기독교세계관센터 대표), 세인 모리스(콜슨센터 선임작가, 언론인)

*원문: breakpoint 논평(2022.11.10.)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을 찾아라!

‘친구가 되어주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이스라엘에 위로와 사랑, 복음 선물하는 강희선 성도

〈온누리신문〉에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을 찾고 있다. 이번 주인공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로와 사랑, 복음을 선물하는 강희선 성도(강남B공동체)다. 강희선 성도는 이스라엘 선교에 누구보다 진심이다. 이스라엘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히브리어 성경통독앱’을 개발하고, 가자지구 심장병 어린이들을 치료하러 의료 봉사를 다녀왔다. 본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유대인 자매를 채용하고, 한국을 방문한 유대인 청년 두 명에게 한류 체험도 시켜줬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돌도 없는 친구가 분명하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강희선 성도(오른쪽)가 예루살렘 하닷사병원에서 가자지구 심장병 어린이를 살피고 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사 40:1).

2017년 어느 날, 하나님이 강희선 성도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다. 그날 이후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이 강희선 성도의 삶의 목표이자 방향이 됐다.

강희선 성도는 그날을 또렷이 기억한다. 그날도 평소처럼 환자들을 진료하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날따라 유독 힘이 빠지고 지쳐서 하나님께 “저를 왜 이곳으로 보내셨어요?”라고 투정을 부렸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강희선 성도의 마음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을 분명하고 강력하게 넣어주셨다.

사실 그때는 그 말씀이 성경에 적힌 구절인 줄도 몰랐다. 위로를 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밖에서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인 줄 알았다. 그래서 꼬박 2년 동안 환자들을 치료하고 돕는 일에 더욱 힘을 쏟았다. 진료마다 환자들의 생활습관을 묻고, 바뀌어야 할 습관을 설명해줬다. 생활 습관만 바뀌도 병이 나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강희선 성도에게 타인을 배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훈련하셨다. 의사라는 직업이 사명이 되는 시간이기도 했다.

그가 이스라엘의 친구가 된 이유

그날 들은 말씀이 〈이사야〉에 적혀 있다는 것을 2년 뒤에 알았다. 강희선 성도가 우연히 온누리교회 ‘살롬 이스라엘’ 수업을 듣게 되면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백성이 이스라엘임을 깨달았다.

“살롬 이스라엘 수업을 듣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바탕으로 수업을 듣는데, 그날 제가 들었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을 발견했

습니다. 그 말씀이 쓰인 시대적 배경과 대상, 상황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말씀을 주셨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강희선 성도는 이스라엘을 왜 위로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공부했다.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 이유를 깨달았다.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은 역사 현장에서 핍박과 박해, 죽음당한 것을 배웠다.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하거나 옹호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전엔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두려움과 증오심이 가득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때부터 강희선 성도는 이스라엘에 위로와 사랑, 복음을 선물하는 친구가 되기로 작정했다.

의사가 개발한 ‘히브리어 성경통독앱’

강희선 성도가 이스라엘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처음 한 일이 ‘히브리어 성경통독앱’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것이었다. ‘의사인데 앱 개발을?’이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한데, 그의 취미가 앱 개발이다. 두란노서원과 계약을 맺고 ‘우리말통독성경’이라는 앱을 개발했을 정도로 실력자다. 그가 지금까지 만든 성경통독앱이 6개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힌디어 등 여러 언어로 성경통독앱을 만들었다. 그중에서 히브리어 성경통독앱을 만드는 작업이 가장 힘들었다.

“히브리어 성경은 다른 언어 성경보다 10배쯤 어려웠습니다. 매일 새벽 4~5시에 일어나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앱을 만들었습니다. 어려워도 이스라엘에 복음을 선물하겠다는 목표가 있어서 그런지 힘이 나고 즐거웠습니다. 지

금 하라고 하면 못 할 일인데 그때는 하나님이 힘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웃음).”

성경통독앱은 개발로 끝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사용하도록 앱스토어 등에 배포해야 한다. 그런데 앱을 배포하려면 성경을 쓴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 말은 히브리어 성경통독앱을 배포하려면 히브리어 성경의 저작권자인 이스라엘성서공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게 가능할까 싶어서 앱은 개발했는데 배포하지 못하고 시간만 흘렀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뜻밖의 길을 열어주셨다. 가족과 함께 여름휴가를 떠난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성서공회 대표를 만나게 하셨다.

“숙소에서 우연히 만난 목사님 소개로 어느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여러 사람을 소개받았는데 그중 한 사람이 이스라엘성서공회 대표였습니다. 그 사람은 10분 전 제 아들에게 장난을 치다가 울린 사람이었습니다. 보통이라면 ‘어디 감히 이방인 따위가 히브리어 성경을 만 들어?’라며 기분 나빠할 상황인데, 제 아들을 울린 게 미안했는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히브리어 성경통독앱 배포를 허락해주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강희선 성도는 이스라엘에서 돌아와 곧장 히브리어 성경통독앱을 배포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2020년부터 전 세계 사람들이 그가 만든 히브리어 성경통독앱을 사용하고 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강희선 성도가 이스라엘을 다시 찾았다. 2022년 12월이었다. 그곳에서 가자지구 심장병 어린이들을 돕는 미국의 한 NGO단체를 만났다. 그들과 함께 8개월 동안 의료사역을 했

다. 가자지구 심장병 어린이들을 앰블런스(ambulance)에 태워 이스라엘 정부의 허락을 받고 국경 너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전원시켰다. 어린 환자들이 수술을 받기 전까지 필요한 응급처치나 의학 정보를 공유하는 일도 했다.

가자지구에서도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다. 심장병을 앓고 있는 한 아이의 배가 부풀어 올랐다. 강희선 성도가 불안해하며 떨고 있는 아이 엄마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랍어로 읽어주면서 아이를 위해 기도해주기를 원하는지 물었다.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무슬림이었던 아이 엄마가 강희선 성도에게 기도를 부탁했다. 강희선 성도가 부풀어 오른 아이의 배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아이의 병이 말끔히 나았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기적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애타게 부르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더욱 힘써야겠다 다짐했습니다.”

“함께 섬길 동역자를 찾습니다!”

이스라엘에 더 오래 머무르고 싶었지만, 히브리어 성경통독앱을 개발 및 배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강희선 성도에게 이스라엘 정부가 호의적이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일정을 마무리하고 한국에 왔다. 그리고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터졌다.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에서 동고동락했던 동역자들과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영혼이 떠올랐다.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힘들었다.

강희선 성도는 이스라엘의 초청 없이 그곳에 못 가는 상황이다. 가지 못하는 대신 한국에 들어온 유대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 전쟁을 피해 한국에 들어온 유대인 자매를 자신의 병원에 채용했다. 그녀가 지낼 숙소를 제공하고, 영어예배 등에 데리고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잠시 한국에 온 유대인 청년 두 명에게 한류 체험을 시켜줬다. 그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함께 듣고, 놀이공원에도 갔다. 그들을 정말 가족처럼 여기며 사랑을 베풀었다. 이 아름다운 일을 함께 섬길 동역자를 찾고 있다.

“예수님을 오해하는 유대인들에게 진짜 사랑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희가 배웠던 역사만큼 잔인하지 않고,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위로하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에 유대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들을 섬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선교본부 창립 10주년을 맞으며

나누고, 사랑하고, 변화시키는 교회!

선교적 교회 되기 위한 사회선교의 비전



김현주 장로
(서대문공동체,
사회선교본부)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것은 곧 세상 속에서 선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다”(《위대하지 않은 선한 그리스도인을 찾습니다》 이재훈 저)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는 언제부터 있었을까? 온누리

교회의 사회선교는 교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선교적 교회의 개념으로 사역하고 있다. 선교적 교회의 정신으로 사회선교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회선교의 발자취를 돌아본다.

사회선교와 긍휼의 영성

故 하용조 목사는 결핵 요양소에서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질병으로 만신창이가 된 하 목사에게 주님은 냄새나는 누더기를 입은 결인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 그날 밤 하 목사는 주님 앞에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불쌍한 죄인임을 깨닫고 이 놀라운 긍휼의 은혜에 대한 순종으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다. 그리하여故 하용조 목사는 일찍부터 그리스도를 본받는 영성, 즉 ‘긍휼의 영성’(마 25:35-36)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故 하용조 목사의 긍휼사역은 단순한 불쌍히 여기는 사역이 아니었다. 사회 각 분야에서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긍휼사역을 선포하고 실천했다. 그것이 현재 온누리교회 사회선교의 기초와 방향이 되었다.故 하용조 목사는 1983년 선교적 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품었고, ‘성경 중심의 교회, 복음 중심의 교회, 선교 중심의 교회, 긍휼을 베푸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는 교회’라는 5가지 목회 방향을 설정했다.

온누리교회 사회선교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부분에서故 하용조 목사의 목회 방향과 긍휼의 영성이 투영된 것을 볼 수 있다. 현재 진행되는 사역들도 온누리교회 초기 사회선교의 영성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4년 10월, 한남동 햇불회관에서 시작된 성경공부 모임이 1985년 온누리교회 창립으로 이어졌다. 교회 창립 이후 성도들은 당시에는 생소한 ‘아웃리치’를 떠나기 시작했다. 초기 아웃리치는 국내에서 ‘선교’와 ‘긍휼’의 정신을 실천했다. 1985년 9월 한의사를 중심으로 의료진과 성도들이 충북 음성에 있는 흰돌교회에서 아픈 이들을 돌보는 아웃리치를 떠났다. 1986년 8월에는 10여 가구가 사는 서해의 어도를 찾아 교회 개척을 시작한 전도사를 도

와 교회 건축과 보수를 도왔다. 두 아웃리치는 현재 농어촌선교의 시작이 되었다. 1988년 10월, 서초동 꽃 마을 무화가 천막촌에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때 온누리교회가 긴급구호팀을 현장에 파견해 약 2개월 동안 이재민 구호, 청소, 방역, 임시 탁아방을 운영했다. 이는 현재 희망공동체와 이웃사랑의 시작이었다. 1989년 교회는 사회선교조직을 만들었다. 가정선교회, 도시빈민 선교회, 근로청소년 선교회, 장애인 선교회, 군선교회, 농어촌선교회, 학원선교회, 직장선교회, 교도소선교회, 의료선교회 등 총 10개 사회선교회 분야로 세분화해서 운영했다.

사회선교의 성장과 발전

1990년대는 온누리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던 시기다.故 하용조 목사의 성령사역 등을 통해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사회선교 사역도 같이 성장했다. 1992년 <국내선교>라는 온누리교회 소식지에서故 하용조 목사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강물같이 흘러야 한다”고 강조했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라는 구호를 당시 국내 선교의 표어로 삼았다. 이를 볼 때, 2014년 사회선교부 출범의 근

단이 설립되었다. 1997년 IMF 위기 가운데 ‘나라 살리기 신앙생활 강령’을 발표하면서 사회참여 운동을 펼쳤고, 이것이 열린나눔장터의 시작이 되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긍휼사역이 시행됨으로써 1994년 창간한 <온누리신문>의 주요 기사가 사회선교에 관한 것으로 채워질 만큼 1990년대 사회선교 사역은 매우 활발하게 펼쳐졌다.

2000년대에 들어 온누리교회는 교회 역사에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Acts29의 비전’을 선포했다. 2003년 선포된 Acts29의 비전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네 가지 축은 ‘사회참여’, ‘CGNTV’, ‘온누리비전교회’, ‘Acts29 비전발리지’였다. 이 가운데 사회참여는 2000년대 사회선교 사역의 좌표가 되었다.

2002년 태풍 루사로 수해를 입은 지역에 온누리교회는 긴급구호팀을 파견했다. 이를 시작으로 2006년 긴급구호를 전문적으로 하는 온누리 긴급재난구호팀 ‘램프온’(LAMP ON; Love And Mercy, Peace Onnuri)이 조직되었다. 램프온은 2000년대 온누리교회 국내 사회선교 사역의 큰 획을 긋는 사역을 많이 했다. 램프온을 중심으로 태안 기름유출 복구, 거문리 월동 준비, 강원지역 복음화 등 모든 성도가

큰 힘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집회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갈등과 이념의 문제, 빈부 격차의 문제를 교회가 끌어안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안아 주셨듯이, 우리가 우리 사회를 안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더 멋진 세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100만 명 이상의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가 돌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가슴에 품지 않으면 그 화가 다음세대에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교회가 해야 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헌신해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제 온누리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온누리교회가 서야 할 자리라고 믿습니다.”

故 하용조 목사가 전한 더 멋진 세상은 우리가 속한 사회가 교회를 통해 변화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온누리교회 2기 사역의 비전으로 사회선교를 천명함과 동시에 ‘예수바보행진’을 선포했다.

2011년, 이재훈 위임목사 취임 이후 우리에게 전한 메시지는 ‘사회선교’였다. 우리가 속한 사회가 교회를 통해 변화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온누리교회 2기 사역의 비전으로 사회선교를 천명함과 동시에 ‘예수바보행진’을 선포했다.

이재훈 위임목사의 말씀은 사회선교에 대한 것이 많았다. 주일설교와 특별집회에서 선포한 ‘연약한 교회’, ‘낮아진 교회’, ‘위험한 교회’ 시리즈 등이 대표적이다. 이재훈 위임목사의 많은 저서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등과 같은 교회 표어에서도 사회선교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선교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역 중 하나다. 초대교회는 사회선교를 바탕으로 부흥했다. 사회선교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는 것이다. 지역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교회는 힘을 잃은 교회다. 선교적 교회는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며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다.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며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사회선교다.故 하용조 목사가 생각했던 사회선교에 대한 열망, 이재훈 위임목사가 제시한 사회선교의 비전을 우리가 실천할 때, 온누리교회가 선교적 교회의 모델을 완성해 나갈 것이다. 교회 초창기부터 사회선교에 대한 열정과 성도들의 헌신으로 사회선교가 선교적 교회의 실천적 사역으로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선교적 교회는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며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다.”

거가 된 <미가> 6장 8절의 정신이 이미 1990년대 초에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긍휼이 1기 위임목사에서 2기 위임목사로 이어지는 사회선교의 핵심 정신임을 알 수 있다.

1991년 청소년 재교육과 쉼터, 지역 주민의 재교육을 위해 군포 하나로센터가 설립되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1993년에는 관악구 난향마을에 어린이 보호시설 및 방과후 학교 ‘열린 이웃’을 개소했다. 1994년에는 용산구 효창공원에 무의탁 노인층을 위한 ‘예수향기회’가 조직되어 무료 급식을 시작했다. 이후 예수향기회 버스는 각종 사역에 투입되어 7년 동안 많은 이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했다. 1995년 도봉구 번동 주공 임대아파트 단지의 장애인보호작업장인 ‘번동코이노니아’ 운영을 위탁받았다.

1995년 교회는 사회선교 사역을 세분화하고 확장해 나갔다. 결혼과정과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열린이웃사역위원회,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성수동위원회, 재소자를 위한 교정자활위원회, 농어촌선교위원회, 장애인사역위원회 등이 활발하게 사역했다. 성수대교, 지하철 가스 폭발 등을 겪으면서 한국기독교재난구조협의회가 창설됐다. 예수향기회가 모태가 되어 1999년 온누리복지재

국내 긴급구호에 투입되었다.

2007년 교회는 ‘임직자회’를 조직해 사회선교를 강화했다. 임직자들에게 사회봉사 활동을 중심으로 사역을 펼치게 했다.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최소 2개월에 1회 이상 가서 그들을 섬기며 사역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추진했다. 전교회적으로 임직자 혹은 임직을 원하는 성도의 기본 사역을 사회선교로 한 것이다.

사회선교가 가야 할 길

2010년 10월 10일, 온누리교회 창립 25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故 하용조 목사가 ‘성령체함과 나눔’을 주제로 설교했다. 교회가 국내에서 할 일에 대해 설교했는데, 이것이 사회선교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다.故 하용조 목사가 당시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더 멋진 세상, 우리가 꿈꾸는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5년 전에 온누리교회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창립 25주년을 맞이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선교사님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은 있었는데, 우리 사회의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힘없는 자들을 위해 교회가

맛있는 말씀 해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막 16:18)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만 읽고,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내용이다. 말씀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는 현장에 나타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은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신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표적들을 보여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그 표적은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손으로 뱀을 집어 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뱀을 잡았으나 해를 당하지 않았다.

“그런데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 버리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행 28:5, 표준새번역).

독을 마셨지만, 해를 입지 않은 경우는 교회의 전설이나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세비우스는 유스투스

바르사바스(Justus Barsabas)가 독을 마셨지만, ‘주의 은혜로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는 기록을 남겼다. 반대로 교회사의 한 사례를 보면 어떤 극단적 이단은 믿음을 과시하기 위해 뱀을 잡기도 하고, 독을 마시다 죽기도 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는 전체적인 문맥과 상황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복음 증거를 위해서 주신 특별한 은사와 능력이다. 물론 오늘날에도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헌신 된 자들에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누리게 될 놀라운 권능과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다. 성경은 다양한 문학적 기법으로 기록되었다. 역사적 사실, 이야기, 고대 사회의 지혜 문헌, <시편>, 교훈적인 내용, 상

징과 은유적 표현 등을 통해서 진리를 전달하는 책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의 다양한 문학적 기법과 당시 상황과 맥락 등을 고려해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종종 이단들이 성경의 내용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종말의 시한을 계산하거나 아픈 성도들에게 의학적 치료를 중단하고, 맹목적인 기도만을 권해서 물의를 일으킨다. 참된 믿음은 문자주의에 매몰되거나 맹목적 기적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은 기적을 ‘표적’으로 표현한다. 기적과 표적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국어사전에서 기적에 대한 정의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신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으로 기술하고 있다. 표적은 일종의 사인(sign)을 말한다. 신호등에서 빨간불은 정지 신호이고, 파란불은 통행 신호이듯이, 표적은 그것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

지가 있다. 복음서는 종종 기적을 표적이라고 부른다. 예수님의 기적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도 마찬가지다. 저자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뱀이나 독과 같은 해로운 것을 만지고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거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복음 전도자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다. 바른 신앙은 성경의 문자주의와 기적 추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다.



오은규 목사
(성동광진공동체)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성전

4월 15~21일

<열왕기상> 6:14~8:40



목상포인트 1:

하나님의 성전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대를 이어 준비되고 완성된다. 성전의 설계도는 다윗이 영감을 받아 준비한 것이다. 솔로몬은 그 설계도를 따라 탁월한 지혜와 실행력으로 장엄하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도 건축한다. 성전 건축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솔로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묵상하자.

▶솔로몬이 7년에 걸쳐 귀한 재료들로 성전을 완공한다. 성소와 지성소 전체를 금으로 입히고 지성소 안에는 두 그룹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다. 솔로몬은 13년 동안 자신의 호화로운 왕궁을 짓는다. 성전 건축 이야기 사이에 궁전 건축 이야기를 삽입한 것은 성전 못지않게 궁전도 화려하게 지었음을 보여 준다. 솔로몬은 늦쇠 대장장이 히람을 통해 성전 주랑 앞에 늦(청동) 기둥 둘을 만들어 세운다.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은 하나님이 권능과 힘으로 이스라엘을 든든히 세우실 것임을 기억하게 한다. 히람은 그 외에도 늦 바다, 늦 받침 수레, 물두멍 등 성전의 늦 기구들을 만

든다. 성전을 위해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 다윗은 솔로몬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은과 금과 기구들을 성전 공간에 둔다.

목상포인트 2: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은 ‘언약궤’다.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자 모세 시대에 성막을 완공했을 때처럼, 성전에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증표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성전과 그 의미에 대해 묵상하자.

▶솔로몬은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로 메어 올리게 한다. 제사장들이 언약궤와 회막, 성막 안의 모든 기구를 메고 성전에 올라가니 솔로몬과 회중이 수많은 양과 소로 제사를 지낸다. 두 돌판이 든 언약궤를 제사장이 성소에 들여놓고 나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 이를 본 솔로몬은 성전이 하나님의 처소임을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선포한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성전이 완공되었다면서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성전을 건축했다고 설명한다.

목상포인트 3: 솔로몬은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여겼다. 그는 하나님께 다윗 언약을 지켜 주시기를 요청하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게 될 여러 상황을 언급한다.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보면 모든 상황을 아시고, 가장 합당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어떻게 기도할지 묵상하자.

▶솔로몬은 제단 앞에서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한다. 그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이 왕위에서 끊이지 않게 해 주시기를 간구한다. 또한 백성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기를 기도한다. 만일 주님의 백성이 죄를 범해 적에게 패하거나 기근과 전염병 등 재앙을 당할 때 그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죄에서 떠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시며,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알려 주시기를 청한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부와 영광으로 가장 먼저 성전을 건축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것을 무슨 일에 의미 있게 사용할지 계획해 보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진행하는 일이 무엇인가? 아이디어와 과정과 실행에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그 일이 아름답게 완성되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구하자.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었다고 고백한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게 될 그 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하신다”고 현재의 믿음으로 선포하자. ▶죄를 깨닫도록 하나님이 나와 공동체에 주신 징계가 있는가? 기도 집중할 수 있는 장소(예배당, 골방 등)에서 회개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사라나를 위해서!

펍택M센터 사라나를 위해서 기도해주시십시오. 사라나는 지난해 6월 22일 조산아로 태어났습니다. 500그램의 초미숙아로 인큐베이터에서 위기가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작은 아이인 까닭인지 태어난 이후에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주기적인 CT 촬영은 물론이고, 계속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력이 많이 약해져 있어서 앞으로 상태를 지켜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라나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도록, 치료가 잘 진행되어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기도해주시십시오. 사라나의 시력이 더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해주시십시오.

사라나의 부모님은 현재 난민 비자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몽골로 귀국하게 되면 사라나가 치료를 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사라나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시십시오. 무엇보다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건강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주시십시오.

마지막으로 사라나의 부모님 비자 문제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십시오. 하나님이 사라나의 가정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해주시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거하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주시십시오.

/ 전홍렬 선교사(펍택M센터)

*기도제목 보내는 곳: daa2@onnuri.org

멘토가 멘티에게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더는 결핍이 아니다!

“계속 저의 부족한 모습만 보게 됩니다. 제 안에 있는 결핍을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때때로 내면의 공허함과 마주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순간의 약함이 아니라 자아 성찰 과정에서 중요한 신호다. 자신의 부족한 면을 인식하는 것이 성찰의 시작점이고, 자아를 발전시키는 길을 찾게 한다. 우선 결핍을 찾아가는 과정을 살펴보자.

먼저 자아의 중요성을 깨닫고, 결핍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다음, 자기 발전 의지를 다져야 한다. 그래야 단순히 결핍만 채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성장을 지속해서 채워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사회적 연결감을 추구해야 한다. 인간 네트워크를 통해 배우고, 공감하며, 서로의 성장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인내하면서 자신을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 결핍은 외부로부터 무언가를 채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면을 성장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사회에서 오는 결핍의 요소 중에는 소속감, 인정, 존중 등이 있다. 소속되어 있는 커뮤니티

티에서 배제감을 느낄 때, 사회 전반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취업의 실패, 직장 내 괴롭힘, 가정 내 폭력, 사회적 편견, 경제적 불안증, 실업, 빈곤 등 무엇보다 인간적인 외로움과 자신에 대한 불만족까지 결핍이 다양하다.

결핍의 반증은 원함이다. 요새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이 취업과 결혼이라고 한다. 외모, 가정환경, 스펙, 경제력, 신앙 등 어떤 것이든 결핍이 많을수록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자존

감이 나타난다. 그러기에 결핍은 세상에서 볼 때 모자란 부분을 찾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기도가 결핍되어 있지는 않은가?’, ‘말씀과 찬양이 결핍되어 있지 않은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고 있는가?’ 등 결핍조차 하나님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을 분별해야 한다.

세상의 결핍은 채우기가 쉽지 않다. 시간과

량받는 자녀가 될수록 커진다. 결핍을 채운다는 것은 ‘어디로부터 인정과 평가를 받을 것인가?’의 문제인데, 하나님은 결핍을 결핍으로 보지 않으신다. 오히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높여 주신다. 그래서 결핍이 더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나의 달란트적인 부분에서 어떤 결핍을 느낀다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급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어떤 부분이 결핍되어 있는지를 고민하기를 바란다. 결핍이 더는 결핍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고, 채움도 하나님을 위해서 채워져야 함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결핍이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소망한다. 세상에서 필요한 결핍의 기준이 무엇이고, 무엇부터 채워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의미 있는 채움이 될 것이다.



김희 멘토
(인천온누리교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결핍이 채워진다.”

감이 떨어진다. 비교하는 것이 망조의 지름길이라고 배워왔지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어쩔 수 없이 비교할 때가 많다.

그런데 결핍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더는 결핍이 아니다. 세상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상대적인 우월감도, 박탈감도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 우리의 관점이 바뀐다면 결핍의 관점도 변하게 될 것이다. 나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의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노력이 필요하고, ‘터닝포인트’라는 계기도 필요하며, 세상 말로 운도 따라야 한다. 아무리 채워도 끝이 보이지 않고, 경쟁 사회 속에서 지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결핍을 채우는 방법은 간단하다. 그 안에는 자신을 위한 결핍은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결핍만 있을 뿐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결핍이 채워진다. 결핍이 채워질 때 자존감이 생긴다. 세상에서의 자존감은 조건의 결핍을 채울수록 커지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자존감은 사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그 마음을 공감하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 말하는 사람의 진심을 알아차리기 어렵다. 정신없이 흘러가는 일상에서는 더욱 그렇다. 집중해서 듣기보다 흘러보내는 말들이 참 많다. 흘러보냈던 말 중에는 중요하게 반응해야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무심하게 반응한 적도 많다. 가깝고 친밀한 사이라면 의식적으로 그들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사람의 마음이 서운할 때가 있는데, 자기의 말에 관심 가져주지 않거나 공감해 주지 않을 때 그렇다. 상대가 자신이 한 말을 중요하게 여겨주지 않을 때 서운한 감정은 증폭된다. 자신의 말에 전달력이 없다고 느끼는 가족 구성원은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소리를 지를 수도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자기의 말을 들어달라는 것이다. 평범하게 말하면 가족 구성원들이 무심히 흘러보내기 때문에 힘을 쥐서 말하는 버릇이 생기기도 한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배우자와 자녀의 말을 유심히 들어줄 필요가 있다.

힘든 하루를 보낸 아내가 있었다. 직장에서 자주 갈등을 경험했던 동료와 그날은 특히 좋지 않았다. 폭발 직전까지 갔는데, 간신히 마음을 붙잡았다. 한바탕 독한 말을 쏟아내고 싶었지만, 화난 감정을 겨우 누른 채 그 사람을 최대한 사무적으로 대하고 후다닥 직장을 뛰쳐나왔다. 그날따라 날씨도 우중충해서 마음

이 더 심란하고 우울했다. 화나고 침울한 마음의 짐을 가지고 겨우 힘든 몸을 이끌며 퇴근 길을 걸었다. 한 참 걷다가 우연히 좋은 냄새가 나는 빵집 앞을 지나가게 됐다. 마음도 우울한데 빵 냄새를 맡으니가 왠지 모르게 우울감이 조금 가라앉았다. 자신도 모르게 빵집에 들어갔다. 그러고는 빵 몇 개를 집어 들고 계산했다. 한 손에는 냄새 좋은 빵 봉지가 들려 있었지만, 마음에는 여전히 우울하고 힘든 감정이 차지하고 있었다. 누군가에게 힘든 마음을 나누고 싶었다. 그 순간 가족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아내가 집에 빵 봉지를 들고 오면서 남편과 자녀에게 이렇게 말한다.

“오늘 온종일 우울했어. 평소에도 걸끄러웠던 동료와 오늘은 특히 힘들었어. 말도 부딪히고, 감정도 상하는 일들이 자주 있었어. 폭발하기 직전이었는데 겨우 참았어. 분하고 우울한 마음이 있는 채로 돌아오는데 냄새가 좋은 빵집을 지나가게 됐고 몇 개 사왔어. 이거 먹어.”

아내는 하루에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가족들에게 말했다. 그런데 남편과 가족들이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한다. “엄마 그래서 어떤 빵 사왔어?”, “여보 그 빵집 나도 잘 아는 곳인데 그 집 참 맛있어”라고 말이다. 아내는 가족들의 반응을 보면서 몹시 실망한다.

무엇이 문제가 될까? 정말 현실에서 이렇게 반응할까? 당연히 모든 가족이 이렇게 반응하

지는 않지만, 종종 일어날 수 있는 대화다. 사람의 감정보다 사실과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우리는 따뜻한 감정보다 냉철한 이성이 활성화된 사람을 종종 만나게 된다. 가까운 가족도 예외가 아니다. 물론 감정이 활성화된 사람이라도 때로 이성이 활성화된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다고 한다. 보이는 상황과 사실, 정보에만 몰두해서 반응하는 지극히 이성적인 반응은 부부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위의 대화에서 큰 문제는 아내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들을 쉽게 흘러보냈다는 것이다. “빵을 사왔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아내는 자신의 감정을 여러 번 전달했다. “마음이 우울했다”, “분노가 일어났다”, “동료와 자주 부딪혀서 평소에도 힘들었는데 오늘 특히 더 힘들었다”, “폭발하기 직전이었다”, “도망치듯 직장에서 퇴근했다” 등 많은 감정 단어가 표현된 표현을 쏟아냈다. 그럼에도 가족들은 그 감정 단어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 이런저런 감정 표현을 들었는데 “오다가 빵 냄새가 좋아서 빵을 샀다”는 말에만 반응을 나타냈다. 아내가 가족들이 빵을 샀다는 말에 반응해 주기를 원했을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자신의 마음을 공감해 주고, 다독여 주기를 원하는 기대가 컸을 것이다.

남편은 우선 빵을 내려놓고, 아내의 이야기

를 들어줘야 한다. 모든 행동을 멈추고, 아내가 말하고자 하는 감정 단어와 표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얼마나 우울했는지 물어봐야 한다.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는지를 함께 나누고 공감해 줘야 한다. 폭발하기 직전까지 갔지만 참고 퇴근했다는 말을 깊이 받아줘야 한다. “빵 가게에서 빵을 샀더니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는 말은 잠시 내려놓는 게 좋다. “어떤 빵을 사왔어?”라는 적절하지 않은 말도 멈출 필요가 있다. 물론 아내들만 경험하는 일은 아니다. 남편과 가족들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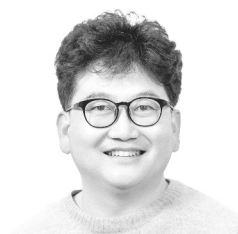
하루를 살면서 겪었던 많은 힘든 감정을 조심스럽게 표현했는데, 가족들이 마음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반응하면 서운하다. 기분이 우울해서 기분 전환할 겸 여기저기 산책하다가 왔다는 식의 말을 하는 가족이 있다면, 어디에서 산책했는지를 물어보기보다 우울했던 가족의 감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상대의 마음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부부와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목사와 함께 떠나는 '섬교회 나들이'

맹골도교회의 봄날이 다시 오기를!

이세영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신학교 졸업 시즌, 다들 사역을 찾아 전국으로 흩어지는 그때 유독 다른 선택지를 들고 남도의 깊은 바다를 건너는 한 전도사가 있었다. 그는 늦깎이

신학생으로 동기들보다 뒤처졌다는 생각에 신학교 입학 초기부터 시간을 아끼며 남다른 기도와 전도에 온 힘을 기울였다.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하던 목회 계획이 기도 중에 만난 하나님의 질문과 씨름하면서 달라졌다.

하나님이 그에게 “목회가 무엇인가?”라고 물으셨다. 그 전도사는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았다. 한동안 남모를 고민으로 시간을 보냈다. 말씀을 다시 찾고, 기도하면서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자연스럽게 고백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전도사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회’라는 자신의 답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쫓아 사역지를 찾았다. 마침내 어느 땅에 마음이 닿았다. 목포에서 배를 타고 조도를 거쳐 기약 없는 시간을 기다리다가 겨우 만나는 땅

‘맹골도’였다. 사람들이 살지만, 복음은 아직 전해지지 않은 곳. 쉽게 사람들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 섬 맹골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땅끝이며, 그곳 주민들을 향한 목회야말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라는 확신을 얻었다. 아내와 딸, 그리고 단출한 집과 함께 맹골도에서의 삶을 시작했다. 이것이 구자웅 목사와 맹골도의 만남이요, 맹골도교회의 시작이다. 그날은 1987년 4월 19일 부활절이었다.

2023년 4월, 맹골도교회가 부활절을 맞아 권사임직과 함께 창립기념예배를 드렸다. 그곳에서 드리는 36번째 부활절 예배였다. “부활 신앙이야말로 맹골도교회의 중심”이라고 흔들림 없이 고백하는 구자웅 목사는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며 사역하고 있다(가족들을 돌보느라 맹골도를 떠난 시절이 있기는 하다). 늦깎이 신학생이 70세를 훌쩍 넘긴 나이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열성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돌보고 가꾸고 있다. 이곳 주민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맹골도의 신앙 파수꾼으로 아내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맹골도는 40여 년 전 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찾기 힘든 섬이다. 하루에 딱 한 편, 진도항에서 출발해서 대략 10개 남짓한 섬을 둘러 약 3~4시간 항해 끝에 만나는 섬이다.

그렇다고 맹골도가 존재감 없는 섬은 아니다. 아는 사람만 안다는 우리나라 최고의 미역, 산모용 미역을 생산하는 곳이다. 한때 감성돔 포인트로 알려져 웬만큼 낚시해 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 번쯤 찾아와 머물렀던 섬이다. 다만 지형적 특성상 다양한 길이 조성되지 못했고, 변변한 모래 해변 하나 없으니 외부인의 방문을 기대할 만한 요소가 없다. 섬은 오래도록 살아온 이들의 터전으로만 남아 있다. 맹골도교회도 그 일원으로 세월을 함께하는 중이다.

맹골도에 학교가 있을 때 교회가 큰 역할을 감당했었다.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활동과 시설이 전혀 없던 섬마을에서 교회가 아이들의 친구였고, 놀이터였다.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과 사모님의 이야기와 함께 펼쳐지는 다양한 교회 활동이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복음과 가까운 삶으로 초대했다. 매일 주일학교가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과 동시에 더 나은 삶과 생활이 어떤 것인지 배우고, 때로는 섬을 벗어나 여행하면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꿈을 펼쳐갈 수 있었다. 또 교회는 미신으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로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조금씩 섬마을의 일원으로 물들었다. 그때가 맹골도교회의 봄날이었다.

하지만 교회 상황이 섬마을 상황과 다르지 않다. 사람들이 하나둘 섬을 떠났고, 학교가 폐교되면서 더는 찾는 이들의 발걸음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교회는 주일 아침마다 종소리를 울리며 근처 섬마을까지 품고 전도하면서 뿌리내렸다. 구자웅 목사의 개인적 사정으로 교회를 비운 적이 있었다. 맹골도의 특성을 잘 아는 구자웅 목사는 이곳에 후임 목회자를 세우기보다 함께 사역했던 이들을 동역자로 훈련해서 교회를 돌볼 수 있도록 믿고 맡겼다. 하지만 구자웅 목사의 부재가 길어지고, 여러 사건이 발생하면서 성도들이 목자 잃은 양처럼 하나둘 흩어져 버렸다. 그렇다고 교회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구자웅 목사와 사모가 몇 해 전 다시 맹골도로 돌아왔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처음 목회의 마음으로 사역에 임하고 있다. 오래된 교회 간판을 고쳐 세우고, 빛바랜 예배당 페인트를 다시 칠하며,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다.

맹골도에서 하루를 보내면서 쉽지 않은 목회의 길을 봤다. 구자웅 목사 부부를 보면서 더욱 간절하게 맹골도교회의 봄날이 다시 오기를,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했다. 많은 이들이 맹골도를 방문하지 못하더라도, 함께 맹골도교회의 봄날을 응원하며 중보기도하기를 올린 마음으로 바란다.

두란노 신간

오늘의 hymn
'찬송가, 찬가'

실패하더라도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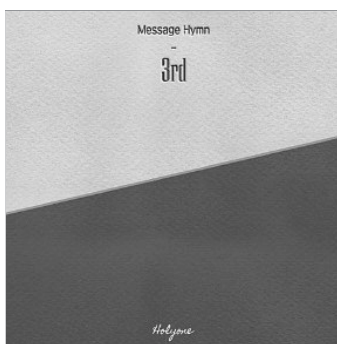


〈실행자〉

임병선 저 | 두란노 | 15,000원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실패를 새로운 길로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전을 기뻐하시고, 의미 있는 걸음으로 인도하신다. 현실에 안주해있는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기를 원하는 성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마음껏 도전하고, 몸부림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예수님과 십자가

‘위로(죄짐 맡은 우리 구주)’
홀리원 곡

있는가? 그렇다면 잠잠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바란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실 것이다. 찬양 ‘위로(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기를 소망한다.

홀리원의 ‘메시지 찬송’ 앨범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성경〉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성도들의 고백과 찬송가 후렴을 한 곡에 담은 찬송가 리메이크 앨범이다. 찬양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짐을 대신 져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란다.

찬양 ‘위로(죄짐 맡은 우리 구주)’는 QR코드, 유튜브, 멜론, 지니, 벅스 등 음악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다.

온누리와 함께하는
나부터 탄소중립!

봄꽃과 기후위기

우리나라 봄꽃은 수백 년 동안 일정한 간격을 두고 차례대로 피었다. 춘서(春序, 봄이 오는 순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봄꽃이 피는 순서가 정해져 있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벚꽃과 개나리, 목련, 진달래 등이 거의 동시에 피고 있다. 개화 시기가 빨라지면, 식물의 생애 주기가 변하고, 식물의 생애 주기가 엉키면 이를 기반으로 살아가던 곤충이 위협을 받는다. 곤충 개체수 변동은 인류의 식량 문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 빨리 핀 봄꽃은 겨울잠을 자는 야생벌에게 피해를 준다. 지구온난화로 봄철 온도가 빠르게 증가하는데, 땅속 온도는 천천히 증가해서 야생벌들이 개화 시기에 맞춰 깨지를 못한다. 꽃이 지고 난 다음 깨어난 야생벌들은 먹이가 부족해서 번식 기회가 줄고, 1년에 1회 번식하는 야생벌이 번식하지 못하면 다음 해 야생벌 밀도가 크게 줄어든다. 이른 개화는 곤충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고, 곤충의 생존은 다시 식물의 번식과 인류의 식량에 영향을 주게 된다. 결국 생태 엽박자가 발생하고, 창조질서가 무너진다. 아름다운 봄꽃이 때에 맞춰 피고 지도록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대학·청년부 ‘사회선교 공모전’

5월 4일까지 구글폼에서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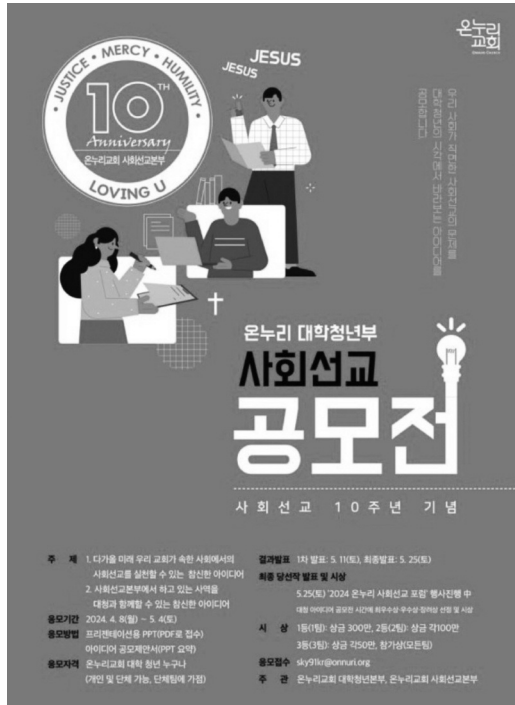
사회선교본부 10주년을 맞아 대학·청년부에서 ‘사회선교 공모전’을 개최한다.

온누리교회 소속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가올 미래에 온누리교회가 사회선교를 실천할 수 있는 아이디어’, ‘사회선교본부에서 하는 사역을 대학·청년부와 함께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그 주제다. 5월 4일(토)까지 하단 QR코드(구글폼)로 접수하고, 이메일(sky91kr@onnuri.org)로 파일을 제출하면 된다.

당선작 발표는 5월 11일(1차)과 25일(최종)에 한다. 1등 300만 원, 2등 100만 원, 3등 50만 원, 참가상을 시상한다. 5월 25일(토) 사회선교포럼에서 최종 선정과 시상할 예정이다.

문의: 02-3215-3767

/ 김다애 기자 daa2@onnuri.org



“온두라스 학생들에게 디지털 세상을 보여주세요”

4~5월 NGO 더멋진세상 ‘교육환경지원’ 캠페인

NGO 더멋진세상이 ‘온두라스 학생들에게 디지털 세상을 보여주세요’를 주제로 4월과 5월 교육환경지원 캠페인을 한다.

NGO 더멋진세상이 2022년 건립한 온두라스 사바나중학교에 PC, TV 등 교육용 전자기기를 지원하는 캠페인이다. 현재 온두라스 사바나중학교에서는 교육용 전자기기가 없어서 종이에 손으로 쓴 자료를 활용하여 수업을 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 동참을 희망하는 성도들은 NGO 더멋진세상 캠페인 홈페이지(online.mrm.or.kr/tlmOIfX)나 하단 QR로 후원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후원신청서에 후원 금액, 후원자명, 휴대폰 번호, 결제정보 등을 입력하면 된다.

문의: 02-2271-2248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이음 한국어교실’ 개최

5월 2일부터 안산M센터 3층

안산M센터와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이음 한국어교실’을 개최한다. 중도입국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교육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집중형 한국어 위탁 교육 프로그램이다.

오는 5월 2일(목)부터 안산M센터 3층에서 열린다. 초등학교 3~4학년 반과 5~6학년반 각각 15명씩 모집한다. 안산교육지원청에서 학교별

로 학생들을 모아서 안산M센터에 위탁할 예정이다.

노규석 목사(안산M센터)는 “중도입국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기를 바란다”면서 “믿음의 교사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다문화 학생들에게 전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다애 기자

4월 화요성령집회 ‘다른 삶의 방식’

매주 화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본당

4월 화요성령집회 ‘다른 삶의 방식’이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이어지고 있다. 온누리교회 소속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4월 화요성령집회에서는 16일 최성민 목사 ‘분열의 시대, 하나님

능력입니다’ (엡 4:1~6), 23일 이서진 목사 ‘상실의 시대, 바라봄이 능력입니다’ (요 5:1~9), 30일 최대홍 목사 ‘거짓의 시대, 복음만이 능력입니다’ (마 7:15~27)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 김다애 기자

내적치유학교 참가자 모집

내적치유학교가 오는 5월 17일(금) 오전 11시부터 19일(일) 오후 2시까지 양지 Acts 29 비전빌리지에서 열린다. 참가신청은 5월 11일까지 아이스쿨(schooli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20세 이상 70세 이하 성도가 대상이다. 회비는 18만 원.

내적치유학교에서는 민경수 목사, 정희성 목사, 오원웅 목사, 오은규 목사가 메시지를 전한다. 5월 17일(금) 오전 9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등록 확인하고, 10시에 버스로 함께 출발할 예정이다. 준비물은 성경책, 설문지, 필기구, 여벌 옷 등이다.

문의: 010-6330-7634

안산M센터, 위탁형 대안학교 교사 모집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 은퇴 교사도 가능

안산M센터 위탁형 대안학교 교사를 모집한다.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그 대상이다. 은퇴 교사도 가능하다. 근무시간은 월 60시간(주 15시간)이고, 근무지는 안산M센터다. 모집 인원은 총 4명이다.

안산M센터 위탁형 대안학교는 안

산시 교육청의 위탁을 받아 운영한다. 이주민 초등학생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기본 교과 과정을 가르친다.

문의: 010-9418-1910

/ 홍하영 기자



효고 기·도·제·목

- 4월 14일(주일) ·상처받은 영혼들이 리브소나타를 통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사랑으로 깨끗이 씻김 받게 하소서.
- 4월 15일(월) ·말씀 선포하실 이재훈 위임목사님께 성령충만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지혜의 영이 넘치게 하소서.
- 4월 16일(화) ·효고 땅에 있는 각 교회가 기도함으로 복음 전파를 준비하게 하시고,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이 집회에 참석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 4월 17일(수) ·참가자들의 부정적인 판단과 생각이 떠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헌신해 열정적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 4월 18일(목) ·리브소나타 출연진이 지혜의 영과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 4월 19일(금) ·효고 땅을 뒹고 있는 우울과 분열의 영들이 떠나고, 깨어진 가정이 하나됨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 4월 20일(토) ·일본의 길을 잃은 자녀들과 청소년들이 주님의 길로 나아오게 하소서.

어린이신문 차세대 작품 모집

《온누리신문》어린이신문 ‘우리들작품’ 코너에 소개할 온누리교회 차세대들의 작품을 모집한다. 차세대들의 신앙 관련 글, 시, 그림, 만들기 등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면 된다.

작품을 보낼 때는 ‘작품 제목, 작품 설명, 이름, 소속, 연락처, 주소’를 꼭 기록해야 한다. 추천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준다. 온누리교회 소속 차세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2-6959-0001

261기 결혼예비학교 참가자 모집

4월 16일부터 참가신청, 선착순 마감

261기 결혼예비학교에서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17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으로 과정을 진행한다.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강의가 2개씩 업로드된다. 강의는 게시일로부터 10일 동안 수강할 수 있다. 강의안은 PDF 파일로 제공된다.

참가신청은 4월 16일(화) 오전 10

시부터 두란노서원 홈페이지(duranno.com)에서 하면 된다. 선착순 마감한다. 회비는 15만 원.

261기 결혼예비학교에서는 유수열 강사, 김숙경 소장, 황규복 목사, 김의수 센터장, 이범석 강사, 이연숙 강사가 강의한다.

문의: 02-2078-3263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장로칼럼

어느 노(老)학자와의 일화

원우현 장로
(서빙고공동체)

세계대학총장협의회(AUP)가 1974년 미국 보스턴 캔모어 광장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1965년 이 협의회를 창립한 경희대학교 조영식 총장이 개회사를 하는 건 당연했다. 그런데 다음 기조연설자로 누구를 청빙할지 궁금했다. 당시 내가 협의회 보스턴 현장을 총괄하는 신입 교수로서 선발대로 파견돼 모든 심부름을 하는 중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유학생으로 보스턴에서 대학원 시절을 보냈다. 아르바이트하면서 근근이 생활했다. 그 때문에 학교 캠퍼스와 일자리 외에 보스턴 전반에 관심을 가질 여유라곤 거의 없었다. 그런데 본부 조영식 총장과 윤세원 부총장이 기조연설자는 노벨상 수상자를 수소문해 초빙하고, 또 축사는 저명대학 총장으로 모시라는 팩스를 보내왔다. 순간 난감했다. 우선 보스턴 지역의 노벨상 수상자가 누구인지 확인했다. 탐색해 봤더니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케네스 애로 교수가 있었다. 축사는 보스턴대학교 총장 존 실버 박사가 책임자로 떠올랐다.

며칠 뒤,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애로 교수의 연구실을 방문했다. 노벨상 수상 교수는 생면부지 동양 청년 교수가 느닷없이 찾아와 당황하는 눈치였다. 세계대학총장협의회는 각국의 대학 총장들이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단체인데,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논지를 피력했던 기억이 난다. 그는 교육학자들에게 부탁하는 게 순리에 맞지 않는가 반문하고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영어도 잘 못하는 젊은 학자가 우겨대니 불편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나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세계 대학의 미래를 전망하는 대화는 많습

니다. 그러나 이미 참석한 총장들과 교육행정가들의 경험이나 교육자로서의 견해는 같은 주제로 여러 번 다뤘습니다. 때문에 보스턴 대회는 색다른 사회과학의 조명을 필요로 합니다. 바로 교수님 같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를 기조연설자로 모셔서 ‘경제적 관점에서 본 세계 대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경청할 기회가 있다면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돌아보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다. 케네스 애로 교수는 내 눈치가 타당하다고 생각했는지 칭찬하면서 기조연설을 승낙했다. 상대방 지위와 상관없이 대화의 타당성에만 집중하던 대학자의 인품이 감동이었다. 종신교수 100여 명을 퇴직시키며 보스턴 대학교를 혁신한 존 실버 총장도 교육개혁을 강연기로 했다. 이 내용을 상세히 적어 경희대학교 본부에 팩스로 보냈다. 대학 본부 조영식 회장, 윤세영 이원설 위원 등의 칭찬과 격려가 쇄도했다. 그야말로 가슴이 벅찬 날이었다.

기대하던 세계대학총장협의회 회의가 열렸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개회사가 끝나가는 데도 애로 교수가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닌가. 그 어려운 문제를 어찌 그리 쉽게 풀어낼 수 있나 기대 반 회의 반했던 이들이 나를 뺨히 쳐다보면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물었다. 난감했지만 식을 진행해야 했다. 순서를 바꿔 존 실버 총장의 축사를 먼저 들었다.

잠시 뒤, 양손에 책을 든 노(老) 교수가 헐레벌떡 회의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닌가. 애로 교수는 독립기념일 행진 때문에 길이 막혔고, 자가운전으로 여유 있게 오다 늦었다고 정중히 사과했다. 그리고 멋진 기조연설을 했다. 우리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겸손하고 겸손한 미국 학자들의 일상을 체험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내 교수 생활에도 큰 교훈을 얻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잠 15:23).

권사칼럼

홀인원의 지혜

조은미 권사
(강동온누리교회)

전원에서 산다는 건 여유롭고, 관계에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 좋다. 그러나 너무 조용하고 적막하기도 하다. 뇌에 받는 자극이 너무 없어 혹시 우울증이나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염려가 된다. 가끔 방금 했던 일이 생각 안 나 당황스럽다. 들고 있던 물건도 손에서 떠나면 둔 곳이 생각나지 않아 절망감이 들기도 한다. 새로운 자극에 뇌를 노출시킬 필요를 느낀다.

내가 글을 쓸 수 있다는 건 얼마나 다행인가? 틈나는 대로 글쓰기를 멈추지 않는다. 글을 쓰는 순간에는 아직 인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에 안도한다. 영어 공부도 꾸준히 하고 있다. 새벽에 듣는 ‘living life’ 영어 설교가 조금씩 분명히 들리기 시작할 때 느끼는 기쁨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

얼마 전 서울 갔다가 전철 역에서 우연히 문단의 지인을 만났다. 파크골프를 가는 중이라는 그녀에게서 샘 솟는 활기가 느껴졌다. 요즘 국민운동으로 파크골프가 장려되고, 노년에 적합한 운동이라 들었다. 좋은 일은 기회가 있을 때 실천에 옮기는 것이 최선이다. 그날 당장 지인의 안내로 파크골프 용품 일체를 구입했다. 그간 골프는 귀족 운동이라 생각해 관심도 갖지 않았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운동을 배워?’라는 소극적인 자세로 배우려는 마음조차 없었다. 그러나 막상 배워보니 파크골프는 골프와 달리 배우기도 쉽고 나이 들어 시작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운동이었다. 비용도 저렴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즐기기도 딱 좋은 운동이다.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니 유튜브에 초보자가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파크골프 강좌가 많이 있었다. 관심이 있으니 강사의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왔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매일 연습한다.

집 정원의 잔디밭이 파크골프 연습하기에 공간이 넉넉하다. 늦바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 했던가. 가르쳐준 대로 제법 딱딱 맞고 날아가는 공을 따라 잔디밭을 왔다 갔다 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운동도 되고, 몸을 움직이니 상쾌하다. 조금씩 기술이 늘 때마다 느끼는 희열이 나를 생기롭게 한다. 목적 없이 잔디밭을 걷는 것이 얼마나 지루한 일인가. 공을 잘 쳐보겠다고 어깨에 힘을 주고 힘껏 치면 흠집과는 다른 방향으로 굴러간다. 목표 지점을 응시하고, 가상의 선을 그어 자연스럽게 퍼팅해야 공이 제 방향으로 굴러간다.

이리저리 굴러가는 공을 보며 우리네 인생과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내 삶에 의미 있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가?’, ‘나를 다스리는 분의 의지대로 순종하며 살 자세가 되어 있는가?’, ‘내가 뭘 해보겠다고 너무 어깨에 잔뜩 힘주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를 파크골프에 빗대어 생각하다 보면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깨닫게 된다. 우리 인생은 Tee(샷을 하기 위해 공을 올려놓는 대)에 놓인 골프공 같은 인생을 사는 것 아닐까? 목표와 다른 각도로 내 맘대로 스윙하면 OB(공이 정해진 구역을 벗어 나가는 것)가 나기도 하고, 공이 엉뚱한 방향으로 굴러가기도 한다. 잘 쳐보려고 내가 의도적으로 어깨에 힘을 줄 때 공은 내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굴러간다. 어깨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팔이 내려오는 반동으로 공을 칠 때 목표와 방향이 흔들리지 않는다. 1타에 홀인원의 기쁨을 누릴 수도 있고, 이글이나 버디로 성공적인 샷을 칠 수가 있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능력 안에 목표를 두고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며 나를 순종시키는 삶을 산다면 남은 내 인생에 홀인원이라는 꿈같은 행운도 찾아오지 않을까?

신앙에세이

원더풀 라이프, 뷰티풀 시니어스!

이비오 목사
(양천공동체, 원더풀 라이프 담당)

선대 신앙인들은 금식기도와 새벽기도, 철야기도 등을 참 열심히 하셨다. 기도뿐만 아니라 전도도 다양했고, 열심히 하셨다. 캠퍼스 전도, 일터 전도, 노방전도, 축호전도 등이 정말 활발했었다. 선대 신앙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한 덕분에 한국 교회의 부흥을 선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온누리교회 시니어사역은 ‘시니어 아카데미’와 ‘은빛 날개’ 등이 있었다. 시니어 아카데미는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이고, ‘은빛날개’는 퇴직이나 은퇴 이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적 여유와 잠재된 은사, 열정

을 빛 낸 삶으로 승화시키기를 갈망하는 시니어 성도를 위한 사역이었다.

그러나 시니어들을 위한 사역의 범위와 역할이 더 넓어질 필요가 있었다. 궁극적으로 시니어 성도들이 은퇴 이후 각자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고, 격려하며, 도전하도록 돕는 사역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 논의와 기도가 ‘원더풀라이프사역팀’을 태동시켰다.

‘원더풀라이프사역팀’에서는 사역 대상 성도들의 은퇴 시기인 60대와 70대로 집중하기로 했다. 6070 세대 성도들이 은퇴 이후 삶을 더욱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역의 방향을 재정비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원더풀라이프사역팀’에서는 지난해 연말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팀원들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 명칭도 6070 세대가 능동적으

로 삶을 누리고,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소망한다는 의미에서 ‘원더풀 라이프’로 정했다.

지난 3월 28일에는 올해 105세 되시는 김형석 교수님(전 연세대 철학과)을 초청해서 강연을 들었다. 김형석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인생의 황금기는 은퇴하는 나이인 60세부터”라고 한다. 50대까지는 직장 일이나 고객을 위한 일로 남들이 시켜서 하는 일을 하지만, 퇴직이나 은퇴 후에는 사명을 따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강연에 참석한 성도 220여 명이 김형석 교수님이 “60세부터 80세까지가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고 하신 말씀에 깊은 감명과 도전을 받았다. ‘원더풀라이프사역팀’을 통해서 성도들이 60대 이후에도 더욱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이뤄 나가기를 결심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한국 교회에서는 시니어 성도들의 기도 저력

과 시간의 여유를 활용해서 나라와 민족, 교회와 차세대를 위한 기도의 불을 붙이기를 원한다. 또한 시니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흠어져서 전도하며, 젊었을 때와 같이 바쁘게 활동하는 믿음 생활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우리 주변에 전쟁에 나가서 창을 휘두르면서 협지를 정복할 수 있는 갈렙과 같은 투지 충만한 믿음의 노장들이 포진하고 있다.

시니어 성도들의 역할이 참 많다. 다음세대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음세대에게 일임하고, 다음세대가 시간적 제약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금식기도, 합심기도, 철야기도, 노방전도, 관계전도 등의 활동에 불을 지펴야 한다. 열정이 식은 다음세대와 대한민국과 땅끝까지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 나가도록 ‘원더풀라이프사역팀’이 앞장섰으면 좋겠다. 시니어를 위한 사역에 힘쓰는 것이 곧 앞선 세대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illegible]

광고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50~9:00
장소: 양재은누리교회 비전홀B
문의: 010-6422-8376

두란노서원 채용 공고
 업무: 마케팅팀 마케팅 편집 디자이너
 형태: 정규직 (수습 및 사용기간 3개월), 주5일 근무(주 35시간)
 지역: 서울 서빙고동 (본사)
 접수: 4월 28일 까지
 서류: <http://www.duranno.com/recruit>

와이무슬림 현장 및 온라인 과정
 일시: 4월 27일~6월 8일 매주 토 오후 5시~8시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두란노홀, Zoom
 회비: 현장(수도권) 5만 원, 온라인(비수도권) 2만 원
 신청: 5월 4일까지 이슬람
 문의: 010-5557-8924



달려라퐁당
안내 및 접수

행복한 가정 레이스

RUN fondant

달려라퐁당 후원챌린지



4.27~5.26

접수기간 : 4.13~5.25

걷기, 러닝, 라이딩, 등산, 인라인 등
자세한 내용 CGN 홈페이지 참고

“2024 달려라퐁당의 후원금은 다음세대와
가정회복을 위한 퐁당 콘텐츠 제작에 사용
됩니다.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회문의: 02-796-9800 (CGN)

협력: 온누리교회, 두란노아버지학교

주관: CGN 운영위원회

주최: CGN